영광군,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 속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향화도항에 '항만 클러스터' 구축 지역 상생 지속 가능 모델 만들 것

영광군이 해상풍력 전진기지인 '배후 항만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향화도 어촌계와 대무마을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 항만 조성·지역산 업 연계 방안' 기본계획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상풍력 사업 기반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선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는 드물게 11GW(기가와트)급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용 항만 조성 구상을 공개했다.

현재 영광군 관할 해역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일대에서는 총 17개 사업자가 약 1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기 위해선 유지관리(O&M) 거점 항만이 필수적이다. 영광군이 향화도항 인근 20ha 부지에 '유지관리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이유다.

클러스터에는 'O&M((운영·유지보수) 지원시설', 'CTV(승무원 수송선) 접안시설', '인증·교육센터', '홍보·체험관'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영광군 관계자들이 대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한데 묶는 핵심 기능들이 포함된다.

영광군은 이를 통해 향화도가 전남 북부 해상풍 력 산업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배후 항만 조성의 필요성, 예정부지의 환경·입지 분석, 항만 기능, 향후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공유했다.

영광군은 특히 지역 의견을 조기에 반영하는 것 이 장기적 상생의 핵심이라며 설명회 개최 이유를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생활 불편이 생기지 않겠느냐", "향후 마을 여건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와 같은 현실적 우려가 쏟아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가기 위한 첫 절차"라며 "지 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배 후항만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원자 1명 목포시의료원장 공모 재공고…4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목포시의료원장 공개모집을 재공고하고 오는 4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재공고는 현 의료원장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차기 의료원장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에서 지원자가 1명 뿐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공개모집에서 응모자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최초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4일까지 재공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목포시의료원장 지원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급이상으로 4년이상 근무한 사람, 종합병원급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병원 경영 또는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확인된 사람이다.

지원자는 조직 운영계획, 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대외협력 전략,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향, 노사 화합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심사를 거쳐 내 년 2월까지 임용될 예정이다.

응모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 해 목포시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목포=장봉선기자 jbs@kwangju.co.kr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시동

후베이성 대표단 10명 팸투어

완도군이 최근 중국 후베이성 기업 대표단이 방 문해 우호 교류와 해양치유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 후베이성 경제, 관광, 무역 분야 기업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완도의 해양치 유와 문화 관광 등을 체험하기 위해 팸투어 등을 진행했다. 완도타워, 이순신 기념관 등 주요 관광 지, 전복·해조류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완도해양 치유센터에서 해양치유, 전복 따기, 전복 김밥 만 들기 등 체험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완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해양자원

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내 급증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치유관광 공동 상품 개발과 문화 관광단 교류, 완도 치유관광 홍보·마케팅, 수산 식품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군은 팸투어를 계기로 후베이성과 교류,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의 역사적 인연이 깊은 곳"이라며 "앞으로 중국과 문화 관광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인단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아리랑상품권 판매 '후적립 방식' 도입

'후캐시백' 결제…부정유통 예방

진도군이 이달부터 카드와 모바일형 진도아리 랑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후적립(후캐시백)' 방식 으로 전환한다.

진도군은 기존의 '선할인'에서 '후적립(후캐시백)'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해 지역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결제 후 즉시 적립이 되는 방식으로 상품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다

'후적립(후캐시백)'은 상품권을 정가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일정 비율의 적립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기존처럼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결제 단계에서 적립 혜택을 받는다.

15퍼센트(%) 할인으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만 원을 카드 또는 이동통신형(모바일형)으로 구매 했을 때 구매한 금액 그대로 충전이 되고 결제 시 1500원이 적립된다.

한편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기존과 똑같이 '선할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보유 중인 카드와 이동통신형(모바일형) 상품권 잔액은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 '후적립(후캐시백)' 방식이 적용되다

진도군 관계자는 "후캐시백(후적립) 방식은 군 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힘이 되는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혜 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습지보전법령 신안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신안군이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 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 상했다. 〈사진〉

신안군은 '3000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쾌

거를 이뤘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 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 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 을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000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다.



신안군은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 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도, 확산 기능성 등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선도하는 신 안군이 되기 위해 공직 문화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뮤지컬 '월출산 달의 여신 루나' 공연

13일 청소년센터 대공연장

영암문화관광재단은 '2025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오후 4시 청소년센터 대공연장에서 지역 창작 뮤지컬 '월출 산 달의 여신 루나'를 공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작품의 배경은 영암의 상징인 월출산으로, 지역의 고유한 정서에 현대적 감수성을 접목한 문 화 콘텐츠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음악을 제작한 '홀튼뮤직'에서 작품의 작곡과 작사를 담당해 완 성도를 높였다.

영암에서 성장한 청년 예술가 이기한과 전문 제

작진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지역이 콘텐츠가 되고, 청년이 창작의 중심이 되는 사업' 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결과이다.

또 작품 중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키즈 일렉트릭 오케스트라'가 협연해 지역의 미래세대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으로서의 음악적 성과를 더할 예정이다.

뮤지컬의 내용은 영암 월출산 아래 자리한 레스 토랑 '월하정'에 매일 밤 찾아오는 신비로운 여인 '루나'에게 마음을 뺏긴 레스토랑 직원들 간의 좌 충우돌 로맨스 작품으로 지역의 현실과 그 가운데 서 벌어지는 서정적 이야기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